

## 기우스 주제묘군

조몬 시대(기원전 13,000 년~기원전 400 년)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우스 주제묘군(기원전 약 1,200 년경)은 삿포로시 동남쪽에 인접한 지토세시의 삼림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제묘란 땅에 원형의 수혈(아래로 판 구멍)을 파고 파낸 흙을 수혈 주위에 고리 모양으로 쌓아 올려 커다란 도넛 모양의 제방(주제, 周堤)을 만든 후, 그 안에 여러 개의 무덤을 배치한 것을 말합니다. 크기는 지름 30~75m 정도로, 배치된 형태로 보아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묘는 일본 북부에 자리한 선사 시대 마을에 복잡한 매장 관습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견학 공간이 마련된 이 유적에서는 주제묘군의 주위를 돌며 관찰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는 가까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제묘군과 인근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지토세시 교육위원회 매장문화재센터[링크]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 규모가 큰 주제

홋카이도의 일부 지역, 특히 기우스 주제묘군이 위치한 이 지역에서는 땅에 원형으로 된 커다란 구멍을 파고 그 주변을 너비 및 높이가 수 m에 달하는 제방으로 둘러싼(주제, 周堤)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후에 이루어진 고고학적 조사에서 이러한 주제는 여러 마을의 공동 무덤지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기우스 주제묘군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2호 주제묘는 지름 73m, 높이 4m, 토대부의 너비가 20m를 넘는 제방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주제묘의 건설에는 25명이 작업했을 때 약 4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9개의 기우스 주제묘 중에서 한 구역에 모여 있는 7개의 무덤 중 일부는 제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각 주제묘 사이에 작은 길이 있고 일부 제방이 다른 곳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각 무덤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고고학적 발견

1960년대부터 시작된 광범위한 조사와 부분적인 발굴을 통해 주제묘군의 내부와 제방의 바깥 둘레에 무덤 구덩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호 주제묘를 조사하던 중 지하 60cm 지점에서 5개의 무덤 구덩이를 발견했는데, 그중 하나에

돌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어떤 목적으로 특별히 표시된 무덤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외 다른 주제묘의 주변과 내부에서 발견된 구멍에서는 제사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토우의 파편, 원형 조석(배석), 붉은 안료의 흔적, 복잡한 조각이 달린 간석기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석기는 특정한 의식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우스 주제묘군의 규모와 이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로 했을 노동력을 생각해보면 이 유적에 특별한 중요성이 부여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덤이나 와시노키[링크](훗카이도), 오유[링크](아키타현), 이세도타이[링크](아키타현), 고마키노[링크](아오모리현), 오모리카쓰야마[링크](아오모리현)의 환상 열석 등의 유적을 통해 기원전 2,000 년경 이후부터 매장 방법의 복잡성과 장례 의식의 중요성이 점차 두드러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전시된 매장물

기우스 주제묘군과 인근의 다른 유적에서 출토된 식량, 토기, 석기, 매장 관습 등 조몬 시대(기원전 13,000 년~기원전 400 년)의 생활 양식과 관련된 매장물은 지토세시 매장문화재센터[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센터는 기우스 주제묘군에서 차로 10 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일부는 영어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